



(121-851)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3-7 2층  
전화 02)706-5880 / 전송 02)706-5881 / www.kin.or.kr

문서번호 : KIN-20101027-01  
수 신 :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기자님  
발 신 : KIN(지구촌동포연대)  
제 목 : <제7회 재외동포NGO대회 in Kyoto> 보도협조요청  
일 시 : 2010년 10월 27일(수) (총 4 쪽)

### <보도협조 요청문>

#### <제7회 재외동포NGO대회>, 11/26~11/29, 日 교토에서 개최 '단바망간기념관' 재건 활동에도 적극 참여

1. 2004년부터 시작된 <재외동포NGO대회>는 지난 6년간(제1회-3회 한국, 제4회 일본 오사카 및 교토 우도로마을, 제5회 러시아 사할린주 전역, 제6회 한국)의 대회를 통해, 각국 재외동포 NGO활동가들의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올바른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제언 및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활동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지난 6년간의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희망'을 남겼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향후 대회를 통해 '절반의 희망'을 구현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연대하기로 한 바 있다. ※ <별첨자료1> '제6회 대회 선언문'

2. 이번 제7회 재외동포NGO대회는, <KIN(지구촌동포연대)>가 주최하고 <제7회 재외동포NGO대회 실행위원회>가 주관하며, 오는 11월26일(금)~29일(월)까지 3박 4일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의 재외동포NGO 활동가, 러시아 사할린 한인활동가, 중국 조선족 동포활동가 20여명(일본 현지 동포활동가 및 연구자 제외)이 참가할 예정이다.

3. 특히 이번 대회는, 일본행정의 도움없이 피해자 스스로 세우고 20년간 운영해온 유일한 역사기념관인 교토 '단바망간기념관' 재건 활동에, 한일 및 각국 동포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재건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자리로, 11월 27일(토) 교토 현지에서 진행할 '단바망간기념관 살리기 윤도현 모금 콘서트'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동포 미래세대포럼>을 통해 각 동포사회를 이끌 젊은 세대들간의 이해와 역사인식의 폭을 확장시켜 역사의 현장을 지키고 왜곡된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동포청년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자 한다. 또한 사할린 한인 활동가들과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활동가 및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할린 한인 강제동원 및 전후 방치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역사적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는데 대한 실천적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자 한다. ※ <별첨자료2> '제7회 대회' 기획안

□ 문의 : KIN(지구촌동포연대) 전화 02)706-5880

**KIN(지구촌동포연대)**(직인생략)

## <제6회 재외동포NGO대회> 선언문

<제6회 재외동포NGO대회>(부제: “재외동포NGO대회, 5년간의 평가와 전망”)가, 2009년 11월 20일 (금)-22일(일) 러시아 사할린 한인 및 중국 조선족 동포, 일본의 동포단체 활동가와 한국의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박3일간 경기도 가평 <꿈꾸는 마을> 연수원에서 열렸다.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다섯 번의 NGO대회는, 우리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재외동포사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실천과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냈고,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6회 대회를 통해 우리는 지난 NGO대회 5년이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희망’으로 남아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절반의 희망을 구현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하였다. 이같은 결의를 토대로 동포사회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재외동포사회, 재외동포 단체들이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줄 것을 호소하는 동시에, 제6회 대회 참가자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하나,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한다.**

정책은 연속성을 생명으로 한다. 우리는 정부가 동포사회 형성에 대한 역사적 성찰 위에서,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선각자들의 후손인 재중국동포, 재일동포, 재CIS 동포들에 대한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며, 재외동포가 삶의 뿌리를 형성한 곳이 어디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관되고 평등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 **하나, 강제동원 70년을 맞는 사할린 한인 3만 명에 대한 지원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18대국회에 계류 중인 사할린동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영주귀국을 원하는 사할린동포들이 고국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제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사할린 잔류 한인 1세 및 그 후손들에 대해서도 영주귀국자에 대한 혜택에 준하는 지원책(의료와 주거 등)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사할린 한인 역사현장 보존(역사기념관 건립) 문제 및 가해국인 일본의 역사적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나아가 최근 정부가 밝힌 복수국적 부여 완화 범위에, 강제동원된 사할린 한인 및 그 후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 **하나, 재일조선적 동포에 대한 국적전환요구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최근 일본 현지의 주일영사관에서, 재일조선적 동포들에게 임시여행증명서 발급을 조건으로 국적전환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무국적 해외동포의 국내입국을 보장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취지에도 어긋나고 또한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잘못된 일이다. 국적전환요구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처사이며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일조선적 동포들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일본사회에서의 차별받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이 고국을 자유왕래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임시여행증명서 발급 조건으로 국적전환을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일본 현지 담당영사들, 관할 주일영사관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한 외교부 책임자 등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여 재발을 방지할 것을 요구한다.

### **하나,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로 우려되는 동포사회 분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됨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을 때 예상되는 동포사회의 분열양상이 우려되고 있다. 재외동포사회, 대한민국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인회 등 재

외국인 선거와 관련된 단위들이 뜻을 모아 동포사회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한인회의 정치적 중립’, ‘현직 한인회장의 정당 공천금지’, ‘재외공관의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 등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통령 직속(혹은 총리 직속)으로 범정부차원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해야한다**

외교부로부터 독립된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설치에 동포사회의 오랜 염원이 있다. 재외동포사회와 모국의 점증하는 교류협력의 확대 및 상호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한 부처인 외교부가 입체화된 재외동포정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그 효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관련 법령을 시급히 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여, 대통령 직속 혹은 총리가 직접 관장하는 범정부차원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지난 5회 대회까지의 대회 참가자를 포함하여, 이번 제6회 대회 참가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2010년 <제7회 재외동포NGO대회>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2009년 11월 22일(일)**

**제6회 재외동포NGO대회 참가자 일동**

## <제7회 재외동포NGO대회 in Kyoto>

■ **대회 일정** : 2010년 11월 26일(금)~29일(월) / 3박 4일

■ **대회 장소** : 일본 교토(교토 시내, 단바망간기념관)

■ **주 최** : KIN(지구촌동포연대)

■ **주 관** : 제7회 재외동포NGO대회 실행위원회

■ **대회 목적** :

○ **교토 ‘단바망간기념관’ 재건의 기초를 다짐**

- 단바망간기념관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알리고, 한국내에서 ‘단바망간기념관 살리기’ 운동을 시작하는데 국내 및 국제적인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11월 27일(토), 교토회관에서 열리는 <윤도현밴드 단바망간기념관 살리기 모금콘서트>에 적극 참가해 망간기념관 재건을 위한 긴급모금에 동참하고자 함

○ **미래세대 포럼을 통한 연대의 틀 마련**

- <재외동포 미래세대포럼>을 통해 동포사회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들간의 이해와 역사인식의 폭을 넓히고, 역사의 현장을 지키고 왜곡된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동포청년 네트워크를 확장시킴

○ **사할린한인 강제동원 및 전후방치문제, 일본내 실천적 네트워크 확장**

- 사할린 한인 활동가들과 일본의 활동가들이 직접 대면함으로써, 일본정부를 상대로 역사적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는 일본내 네트워크의 확장을 도모함

■ **참가 인원** : 한국-중국-러시아 동포관련 활동가 20명 내외(현지 참가자 제외)

■ **일 정** : 현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11월 26일(금) 인천→오사카  
오리엔테이션  
(재일조선인의 역사 및 현황 / 전체 일정 관련 오리엔테이션)
- 11월 27일(토) 교토지역 재일조선인 관련 현장 방문  
망간기념관재건을 위한 윤도현밴드 모금콘서트 참가
- 11월 28일(일) 단바망간기념관 견학
- 11월 29일(월) 오사카→인천

<기획안 끝>